

# 집안일은 어려워야

함께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김정색이 주말마다 아침 햇살의 포근함 속에서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일들이지만, 시작하는 순간 콩닥콩닥 뛰는 마음이 있었지요.



배정삼은 매주 토요일, 김정색과 함께 집안일을 돕기로 했어요. 둘은 언제나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먼지를 살랑살랑 털어내고,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주방에서 물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둘은 웃으며 닦았어요. "우린 대단해," 정삼이 환히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집안일이 어렵지 않았던 건, 서로 도우며 했기 덕분이에요.  
모든 걸 마무리하고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숲 속 바람은 홀로 춤을 추었지요. 두 마음도 그랬어요,  
함께라서 더 자유롭게.



주말마다 새로움을 잊지 않고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음엔 더 잘할 거야,"라며 속삭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로 좋은 팀이야,"라며 서로를 안아 주었지요.



마음은 갓 구운 빵처럼 따끈하고, 집안일조차  
즐거웠어요. 함께라는 행복이 피어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건, 이런 따뜻함이었구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어요.

# 끝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별이 남길 바라요.

집안일은 어려워야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